

필요광장

캐릭터 전성시대를 위하여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일본 구마모토현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검은 곰 모양의 귀여운 캐릭터 ‘구마몬’이 있다. 구마모토 현정의 영업부장 역할을 맡고 있는 구마몬은 지자체 공식 행사에 참석도 하고, 방송에도 출연한다. 2011년 탄생한 ‘구마몬’ 캐릭터의 상품 매출이 지난해 1000억 엔(1조8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2012년 300억 엔에서 3년 만에 무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구마몬의 성공으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에 마스코트 열풍이 불었고, 다수의 우리 지자체도 일본을 방문해 벤치마킹을 하고 돌아왔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고양시가 마스코트 ‘고양고양이’를 앞세워 SNS 및 축제 홍보 등의 활동을 통해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국내 캐릭터 시장은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캐릭터 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 5년간 매출액 기준 67% 증가했으며, 전체 시장 규모는 9조 원 대로 추정된다. 수출액 또한 지난 5년간 112%나 늘었다. 어린이의 전유물로 여겨 온 캐릭터가 SNS 이모티콘 등을 통해 기성세대에게도 친화력이 높아진 것이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와 키덜트 층의 등장도 캐릭터 소비층을 확장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국내 키덜트 시장 규모는 1조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캐릭터가 작은 사치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일종의 ‘힐링’을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시장 확대의 이유다.

전통적으로 캐릭터는 오프라인 시장 위주였지만, 최근에는 스마트 기기의 확산에 따라 온라인과 모바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또, 최근의 캐릭터들은 디지털로 이미지가 구현되는 특성을 살려 각종 콘텐츠와 활발하게 콜라보레이션하고 있다. 핀란드의 국민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무민’은 2014년 캐릭터 탄생 70주년을 기념해 애니메이션 영화 ‘무민’을 개봉

하고 우리나라 브랜드들과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여 대성공을 거둔 바 있다. 한 도너츠 업체와 실시한 마케팅은 ‘무민 대란’이라 불릴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캐릭터 산업의 역사는 채 40년이 되지 않는다. 1960~70년대에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주인공이 장난감 같은 완구나 문구류에 그림으로 그려진 정도에 불과했다. 우리 국민들이 캐릭터의 효과를 확실하게 각인한 것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의 마스코트였던 ‘호돌이’다. 당시 호돌이 캐릭터를 활용해 매출을 두 배나 끌어올린 회사도 있었다.

1995년에는 우리나라 국민 캐릭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아기 공룡 ‘둘리’가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국내 캐릭터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스타 캐릭터인 ‘보로로’와 ‘뿌까’ ‘라바’ 등이 차례로 등장해 현재까지도 인기를 얻고 있다. 보로로의 경제 효과는 5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브랜드 가치는 무려 8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기업과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잘 만든 캐릭터는 뛰어난 마케팅 수단이자 지역과 회사를 먹여 살리는 효자 상품

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캐릭터 중에 성공한 모델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단순히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거나 친근한 이미지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스타 배우와 가수를 키우고 매니지먼트하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의 치밀한 기획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분야가 바로 캐릭터 라이선싱 비즈니스다. 스토리텔링이 중요하고, 적극적인 여성상을 원하는 여성들이 호응했던 ‘뿌까’처럼 시대의 정서도 담아내야 한다.

정부는 캐릭터 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해 캐릭터 창작 역량 강화 및 기반 조성고 성공 사례 창출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콘텐츠 산업의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 즉 ‘융합’을 바탕으로 캐릭터를 활용한 게임·뮤지컬·모바일 앱·출판 등 캐릭터 연계 콘텐츠의 제작 지원 사업도 펼쳐갈 것이다. 우리의 오랜 전통과 역사 속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될 스타 캐릭터가 다수 탄생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캐릭터의 전성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길 기대한다.

社說

친노 패권 정리 없이 개혁 공천 말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김중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패권 정치 청산 및 운동권 정치 탈피를 수차례 강조해 왔다. 취임과 동시에 친노 청산 의지를 보인 것이 더민주의 지지를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천 결과 발표를 보면 과연 김대표의 ‘대국민 약속’이 지켜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일부 막말 정치인을 배제하긴 했지만 친노(친노·무현)·운동권에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평이 나오기 때문이다.

더민주의 44개 지역 공천 결과를 보면 정청래 의원을 포함해 몇몇 의원이 탈락했다. 정청래 의원은 막말, 강동원 의원은 통합진보당 출신, 윤후덕 의원은 명절 때 연세대학교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정 의원의 컷오프는 일단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하지만 김 대표가 친노 패권주의를 쳐내겠다고 거듭 큰소리친 것에 비하면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많은 운동권 출신들과 친노 정치인들이 단순 공천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해찬·이목희·김경협·전해철 의원 등은 살아남았다. 이 때문에 공천 결과를 지켜 본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패권 청산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결국 ‘김중민표 물갈이’는 여론의 표적이 된 몇몇 의원들을 ‘맛보기’로 정리하는 선에서 끝내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대표는 더민주의 기득권 핵심을 이루는 친노·386 세력 중 성공률은 살아남고 일부는 밖에 난 인사들만 쳐낸 교묘한 자깁기라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다. 게다가 일박한 호남 공천에서 친노·친문(친 문재인) 인사에 대한 컷오프가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호남 민심이 다시 외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민 참여로 아파트 관리비 누수 막아야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상당수 아파트 단지 회계처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다식 중 6곳 꼴로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회계 감사를 벌인 결과 관리비 비리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만연해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국무조정실이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함께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8319곳에 대해 감사했더니 19.4%(1610곳)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광주에서는 418개 단지 중 60개(20.6%), 전남은 276단지에서 36개(14%)가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분류됐다. 8개 광역시 가운데 광주는 4번째, 도 단위에서 전남은 6번째로, ‘생활 비리’가 고질병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현금 흐름표 미작성이 가장 많았지만 회계자료 누락이나 항목 분류 등 회계처리 부적정, 장기수선 충당금 과소 적립·목적 외 사용, 납세의무 미이행,

전기 수도 사용료 과다징수액 미정산 등도 뒤를 이었다. 비리는 관리소장과 직원, 입주자대표회장 등 입주민을 대신해 아파트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인물들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순천에서는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운영비 4000만 원을 횡령하고, 공사 낙찰 대가로 업체로부터 4300만 원을 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제 정부는 회계감사를 확대함과 동시에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경찰 등과 협업으로 비리를 줄여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파트 관리비 근절을 위한 거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특히 회계 감사 결과가 공개되고 다른 단지와 관리비 비교도 가능한 ‘공통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www.k-apt.go.kr)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입주민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아파트 운영비 비리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칼럼

사랑과 정의의 어울림



정광병 광주지검 검사

몇 년 전 하버드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란 책이 유행하면서 ‘정의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다. 이 책은 확립적 개념으로 정립된 ‘정의’가 아니라 개개인에게 차별화된 ‘정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여러분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필자는 감사하게도 ‘검사’란 직업을 갖게 되었다. 어릴 적부터 각종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접했던 검사는 늘 범죄자를 단죄하는 모습이고, 그런 모습은 필자에게 ‘정의란 저런

것이구나’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하였다. 그래서인지 검사로 임관될 당시 필자가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은 모두 약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잘못된 만큼 처벌받고, ‘정의를 세우는 검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고, 그것이 검사의 책무라 생각했다.

하지만 몇 해가 지난 지금 필자에게 그런 생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는 지인으로부터 미국 이스턴 메노사이트 대학 교수인 하워드 제어가 쓴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선물 받아 읽은 적이 있다.

그 책에서 잘 지적하고 있지만, 현재의 사법시스템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 짓고, 가해자에 대한 응징(처벌),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 등을 목표로 하는 응보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사법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검사의 업무도 당연히 응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필자가 검찰청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은 소위 가해자로, 고의로 타인에게 죄를 범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검사로서 당연히 그들을 기소해서

법정에 세워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필자도 사람인자라 그들을 대면해 그들의 불우한 성장 배경, 어려운 주변 환경 등을 듣고 나면 다양한 생각이 몰려온다.

그 중 자주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을 처벌하면 과연 정의는 세워지는 것일까”이다. 지금까지 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검사가 수천, 수만 명의 가해자를 처벌해 왔지만, 가해자는 끊이지 않고 계속 생겨나고 있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충분히 공감받아야 할 사람을 제대로 공감받지 못한 사람일 뿐이다. 그들을 처벌로서 교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들을 진정 변화시키고, 가해자 발생을 줄이는 방법은 ‘사람’이지 않을까.

한편, 피해자는 현 사법시스템에서 우리 사회에 정의가 제대로 세워지고 있다고 생각할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불만과 분노로 가득 찬 피해자들이 많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승복하지 못해 항고·재항고를 하거나,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해 언론을 이용해 그 결과를 뒤집으려 하기도 한다.

모든 법적 분쟁이 끝난 이후에도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언론, 청와대 등에 진정을 넣기도 한다. 그들 입장에서 이 땅에 정의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 사회는 정의를 부단히 추구해 왔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에게 정의는 충족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애초에 추구해 온 정의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지는 않은 걸까.

사람을 통한 정의만이 우리 사회에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정의를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회복적 정의’ 내지 ‘사랑을 통한 용서와 화해는 범죄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가져다 주고 그러한 만족과 평화가 진정한 정의라 할 것이다.

사랑과 정의의 사전적 의미는 많이 다르지만, 사랑과 정의는 충분히 결합할 수 있고, 현대 사회는 사랑을 통한 정의 세우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 검사인 필자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독자들도 그 길을 함께 걸어주길 바란다.

기고

소록도병원 100년, 이젠 희망과 소통의 섬으로



박형철 국립소록도병원장

“하나 된 아름다운 세상의 상징”인 국립소록도병원이 올해로 개원 100주년을 맞는다. 일제강점기인 1916년 설립된 자혜의원이 모태인 소록도병원은 인권유린현장에서 이제 치유와 희망의 상징으로 거듭나며 100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걸맞은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100주년을 맞은 소록도병원은 그간 한센인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박애정신과 인권보호 그리고 봉사 나눔을 실천하는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울타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센인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역사의 현장에서 소통이 가능한 평화의 공간으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소록도는 주민 모두가 건강에 대한 희망과 함께 100년의 성과물을 다양한 모습으로 담아내고 있다.

100년 전, 일제는 단순히 한센인을 건 강자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마땅한 섬을

물색한다. 지리나 기후, 생태 등을 조사한 일제는 소록도를 격리장소로 정한다. 원주민을 내보내고 소록도 한 칸에 소록도 자혜의원을 설립한다. 조선총독부령 제7호에 의해 설립된 이 시설은 일제의 자해가 아닌, 당시 선교사들 중심의 기독교나(敎)시설에 대한 식민지 조선에 있어 나정책의 주도권과 일본 황실 이미지 선전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던 측면이 강하다. 일제에 의한 소록도는 “질병”의 퇴치가 아닌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박멸을 위한 공간, 즉 차별과 편견을 재생산하는 장소라는 주장에 눈길이가 가는 이유다.

그동안 병원은 역사를 담은 작업도 게울리하지 않았다. 먼저 1979년 간행된 ‘소록도 반세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소록도 50년’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소록도 한센환자가 직접 저술한 것으로 소록도 설립부터 반세기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병원에서는 문화재 보존에도 나서 소록도광생원 감금실, 검사실, 식량창고, 소록도 자혜의원 등 역사현장 12곳을 등록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단추 개우개, 개호밥통, 치료용 칼 등 한센인 생활용품 20여 점도 새로 발굴하여 문화재 등록을 추진 중이다.

20년 전 우리 선배들은 사진이나 기록, 한센 법률 등을 한 곳에 모아 전시하기 위

하여 소록도 자료관을 만들었다. 여기에 병원 설립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박물관을 만들고 있다.

소록도가 가진 역사적 가치를 보존 전달하고 인권과 문화 예술 교육이 한데 어우러진 공간이 될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은 그 탄생에서부터 남다른 의미가 있다.

2000여평방미터 규모로 인권, 한센 역사 교육의 장, 힐링의 허브, 소통의 공간을 지향하는 박물관 2층에는 한센병 이해, 인권, 소록도 삶, 국립소록도병원, 나눔 등으로 주제를 나눠 소록도 역사를 보여준다. 1층에는 현대식 수장고, 라운지, 아트샵을 배치하여 소록도와 물과의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2층에 마련된 나눔관에서는 43년간 이국땅에서 봉사를 몸소 실천했던 마리안느 수녀님 등을 만날 수도, 매년 수천여 명의 장단기 자원봉사자들의 나눔 실천의 정신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소록도가 단순히 격리, 차별 편견의 장소만이 아닌 고통과 고난 속에서 피어난 치료와 극복의 역사, 봉사와 나눔도 같이 할 수 있음을 보여 줄 것이다.

소록도는 곳곳이 역사와 문화의 현장으로 한센의 차별과 편견, 비인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우리는 ‘소록도 전체가 박물관’이란 모토 아래 곳곳에 숨

어있는 한센 유적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일에 경주하고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 카빌의 국립한센병 박물관, 하와이 몰로카이 소재 칼라우파 국립한센병역사공원이나 일본 도쿄 근처 다마전생원에 있는 국립한센병자료관, 노르웨이 한센병박물관과 견주어도 절대 손색이 없는 한국의 독자적인 박물관으로 탄생하길 기대한다.

‘시간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 그러나 기억은 또 다른 방향으로도 흐른다’는 윌리엄 깁슨의 말처럼 시간의 흐름과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기억에 의해서 온전히 발견된 의미나 언어를 통해서 후세에 되물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어렵게 느끼며 소록도개원 100주년 행사를 조용히 맞을 채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소록도의 아픈 역사를 반추하고 또 다른 아름다운 동행을 준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즐겁고 감동적이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기념비적인 의미와 조형성을 갖춘 역사적 건축물들이 즐비한 다양한 이야기의 보고이자 유서 깊은 명소로서의 소록도의 가치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국립소록도병원 100년을 맞아 이제 소록도가 그 아픔의 역사를 담고 많은 분들에게 아름답게 기억되며 서로 소통하는 평화의 장소로 거듭나길 희망해본다.

無等鼓

‘개미’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인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세 가지 사건을 자신의 책 ‘상상력 사전’에서 제시한 적이 있다. 물론 상대적 지식이라는 책의 부제를 통해 자신의 입장임을 밝혔지만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그가 제시한 세 가지 사건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찰스 다윈의 진화론, 프로이트의 선언이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던 지구인들에게, 우주에서 보면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는 작은 별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당시 지구가 세 세상의 중심이고, 이 중심의 주인이라 생각했던 인류는 자연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다윈의 진화론은 당시만 해도 신의 창조물로서 모든 생물의 우위 존재로 여겨졌던 인류에게 충격을 던져 주었다. 그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을 넘어가서서는 존재하기는커녕 한낱 다른 동물에게서 나온 하나의 동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폈다.

인간은 예술을 창조하고, 과학적인 발명과 발견을 하며, 철학 체계를 세우

거나 정치 체도를 만드는 등 그 모든 행위가 자아를 초월하는 고상한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믿어졌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인간이란 그저 성적인 파트너를 유혹하거나 욕망에 이끌리고 있을 뿐이라고 선언했다.

이세돌 9단이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대국에서 3패 끝에 1승을 챙겼다. 하지만 전 세계는 초기 대국에서 잇따라 패하자 충격에 빠졌었다. 인간이 기계에게 패했다는 생각에 입은 자존심의 상처는 좀처럼 가시지 않을 것 같다. 5승을 기대했다가 ‘1승만이라도’ 겨우 주기를 바란 이들이 한둘이었겠는가?

하지만 이세돌 9단이 5연패를 당했더라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수천년 동안 인류가 수많은 기계를 발명했지만 발명자인 인류가 ‘성능’ 면에서 기계를 앞선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최소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그때까지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 만든 것이 기계다. 마차와 자동차를 발명한 인간이 그 기계보다 빨리 달릴 수 없었다는 이유로 실의에 빠진다면 말이 되겠는가.

/채희중 사회2부장chae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m.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0-0195)	편집 부 2200-649 (FAX 222-4938)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0195)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제 목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